

지난 총선 득표율 적용땐 민주 18석 ↓ 한국 16석 ↓ 정의 8석 ↑

뉴스초점 / '일송달송' 여야4당 선거제 합의안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지난 17일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을 지난 20대 총선 결과에 적용해보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의석수가 줄지만, 정의당은 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각 당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애초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전체의석 배분이 특징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게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비례대표 배정은 어떻게·여야 4당의 합의안은 현행 각 253석과 47석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225석과 75석으로 바꿔 전체 의석수는 300석으로 고정하고,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비례대표 '75석'을 배분하기 위해선 4단계를 거쳐야 한다. 국민은 과거 총선과 동일하게 1인당 2표(지역구와 정당)를 행사하면 된다.

투표가 끝나면 먼저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300석을 배분한다. 예컨대 A정당이 확보한 정당득표율이 40%라면 할당 의석은 120석이다. 단, 무소속 의석이나 비합당 정당 당선자가 있을 경우엔 300석에서 이 숫자를 뺀 다음 할당의석을 나눈다. 그 다음 할당받은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 의석수를 제외하고 남은 숫자의 절반을 50% 연동률 적용 의석수로 확정한다.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가 100명이라고 가정한다면, 할당의석수(120)에서 지역구(100)를 제외한 20석이 남게 되는데 이 숫자의 절반인 10석이 연동률 적용 의석수가 된다. 따라서 연동률을 적용한 A정당의 1차 총 의석수는 110석이다.

이제 권역별로 할당 의석수를 나누는 순서다. 정당 의석 총수에 권역별 득표율을 곱한 뒤 해당 권역별 당선인 수를 뺀 뒤 남겨진 수에 50% 연동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단, 권역별 득표율은 정당 내 해당 권역의 득표 비중(권역 정당득표수 ÷ 전국 정당득표수)을 의미한다. 예컨대 A정당이 호남·제주에서 지역구 의원을 16명 당

현행 47석 비례대표 75석으로

50% 부분 연동형 적용하고

권역별 득표율로 비례대표 배분

새누리 13, 민주 7, 정의 12석

선시켰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A정당의 지역구 정당득표 비중이 20%였다면 110석에 20%를 곱한 뒤(22석) 당선 지역구 의원 수 16명을 빼면 6석이 남는다. 여기에 50% 연동률을 적용한 3석이 호남·제주 권역의 연동비례의석수다.

또 이 정당이 서울에서 지역구 의원 25명을 배출하고 이 권역 정당득표비중이 25%였다 가정하자. 그러면 1차 총의석수(110석)에 서울 권역득표율(25%)을 곱한 숫자인 27.5가 할당 의석수다. 여기서 서울 지역 당선인 수(25)를 뺀 2.5석의 50%연동률, 즉 1.25석이 A정당의 서울 권역 연동의석수다. 권역별 연동의석수는 반올림 하여 산정하고, 산정한 결과 1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정당별로 이처럼 '선배분'한 비례대표 의석수가 확정되면,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 75석에서 각각이 모두 확정된 의석을 빼고서 남은 의석을 현재 비례대표 방식인 병립형으로 배분한다. 이에 따라 A 정당은 40%(A 정당 전국 정당득표율)를 추가로 가져가서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다시 지역별로 배분한다.

하지만, 만약 호남·제주에서 지역구 22명 이상을 당선시켰다면 연동형비례 의석수는 0이 된다.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병립형 비례대표 전체 풀(pool)이 최소화될 경우 호남·제주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을 아예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총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정된 A정당은 내부적으로 이 의석을 석패율제(지역구에서 야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와

자당의 6개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나눠 비례대표 당선자를 결정한다.

◇20대 총선에 적용하면 민주·한국 의석수 줄고 정의는 늘어=2016년 20대 총선 지역구 당선자와 정당득표율에 이번 합의안 방식을 적용하면 민주당은 총 의석수가 18석, 한국당은 16석 각각 감소하지만, 정의당은 8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금은 사라진 국민의당과,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서 제외되는 '정당득표율 3% 미만'의 군소정당 등을 계산 과정에는 포함했으나 결과는 민주당과 한국당, 정의당 위주로 따져봤다. 20대 총선 지역구 당선자 수는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105명, 민주당 110명, 정의당 2명, 정당득표율은 새누리당 33.50%, 민주당 25.54%, 정의당 7.23%였다.

합의안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253명에서 225명으로 28명(11.1%) 줄인 것을 고려해 각 정당 지역구 당선자 수를 보장하면 새누리당은 93명, 민주당은 98명, 정의당은 2명이다.

300석 중 정당득표율에 비례한 의석에서 보정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고 연동률 50%를 적용해 '선배분' 비례대표 의석수를 계산하면 새누리당은 4석, 민주당은 0석, 정의당은 10석을 확보한다.

총 비례대표 의석수 75석 중 정당별로 확보한 '선배분' 비례대표 의석수(국민의당, 군소정당 포함해 계산)를 제외하고 남은 의석수를 다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나누면 새누리당은 9석, 민주당은 7석, 정의당은 2석을 추가로 받는다.

'선배분'과 '추가배분'을 합치면 새누리당 13석, 민주당 7석, 정의당 12석이라는 정당별 비례대표 총 의석수가 나온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합쳐 새누리당은 총 106석, 민주당은 총 105석, 정의당은 총 14석을 가져간다는 결론이다. 실제 20대 총선 결과와 비교하면 총 의석이 새누리당은 122석에서 106석으로 16석이 줄어들고, 민주당은 123석에서 105석으로 18석이 감소한다. 반면 정의당은 6석에서 14석으로 8석이 늘어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박상기(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거사위원회 활동 및 버닝썬 수사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박상기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의혹 철저 규명”

서울청사서 공동 브리핑

“특권층 반사회적 사건

범죄 드러나면 검찰 수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9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버닝썬 사건'에서 촉발된 각종 의혹과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장자연 리스트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기 장관과 공동 브리핑을 열어 버닝썬 사건을 언급하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할 일부 경찰관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데 대해 행안부 장관으로서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청을 소속청으로 둔 행안부 장관으로서 경찰로 하여금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함께 유착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사태가 닥쳐올지 모른다는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하도록 독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관의 유착 비리가 사실로 밝혀지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제기된 모든 쟁점에 대해 경찰의 모든 역량을 가동해 철두철미 수사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범죄와 불법 자체를 즐기고 이를 자랑삼아 조장하는 특권층의 반(反)사회적 퇴폐 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대형 클럽 주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국 지방경찰청을 일제히 투입해 단속함으로써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경찰 유착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우려에 “국민적 의혹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 1회 수사상황을 브리핑하겠다”며 “수사 확대 필요성이 있으면 언제든지 확대해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다른 은폐나 축소 등이 적발되면 (경찰) 조직 전체의 명운을 걸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용산 참사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 전 차관 사건은 우리 사회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는 이들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

기간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산 참사 진상조사를 두고도 “연장된 기간 동안 필요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박 장관은 밝혔다. 재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식을 생각 중”이라며 “효과적 재수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못하고 과거사가 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이들 사건의 진상 규명을 통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분명히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이 수사하는 버닝썬 관련 경찰 유착 의혹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는 데 대해 “경찰청장이 명운을 걸고 수사한다고 약속해 수사 결과를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버닝썬 사건과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장자연씨 사건에 관한 보고를 받은 뒤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알이 규명하리”고 주문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문 대통령 “제조업 활력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 살리는 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제조업의 활력을 위해 정부가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우리 경제가 여러 측면에서 개선돼 다행”이라면서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증가했고 경제 소비 지표들도 나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6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만3000명이 증가해 작년 1월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며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 지수도 11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국가 경제는 건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국가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여러 차례 제조업 대책을 마련했고 스마트 공장·규제 샌드박스 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제조업 혁신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장 체감도는 낮다”고 지적했다. 또 “전통 주력 제조 분야의 고용 부진이 계속 된다는 점이 우리 경제의 가장 어려운 점”이라면서 “세계 제조업 경기 전반이 어려워 우나 외부 타만 할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가까운 무안에서 출발해요~ 이제 편리하게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쭉~우~욱~

무안 ↔ 기타큐슈 사랑~사랑 봄꽃 가득한 3,4월에 떠나요♡

가까운 무안에서 일본 기타큐슈 온천여행

TW티웨이항공 매주 화/금/일 출발

오후출발(화,금,일) 무안(20:20) → 기타큐슈(21:30) / 기타큐슈(23:00) → 무안(00:15)

- ◆ 기타큐슈, 벳부, 유후인 2박3일 [정통] 499,000원~ / [폭격] 539,000원
- ◆ 기타큐슈, 벳부, 유후인 3박4일 [정통] 699,000원~ / [폭격] 759,000원

무안에서 떠나는 해외여행 패키지!!

기타큐슈/오이타/오사카/동경/다낭/방콕/세부

코타키나발루/보라카이/대만/마카오/상해/블라디보스톡

대표전화 1522-1901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 1522-1901

FAX :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이사 최금환

무안 ↔ 동경 매일출발 일본의 수도 도쿄를 무안에서!

★최저모객인원 7명 출발보장★

- ◆ [정통] 집중모객 4/11, 21, 5/12, 19 출발 동경,하코네 3일 취항특가!! 679,000원~
- ◆ [정통] 동경,하코네 3일(디즈니랜드선택관광) 749,000원~
- ◆ [정통] 동경,하코네 4일 889,000원~

무안 ↔ 기타큐슈 ↔ 오키나와

기타큐슈와 오키나와를 한번에!!

- ◆ [정통] 3박 4일 899,000원 / [폭격] 3박 4일 999,000원
- ◆ 3박 4일 에어텔(항공+호텔+렌트카) 599,000원~

*예약시점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안 ↔ 보라카이 3/20일 부터 출발

[수요일 출발] 3박 4일 419,000원~

[토요일 출발] 4박 5일 469,000원~

부산출항 ↔ 대마도 매일출발

[4월 ~ 5월 대마도 매일 출발]

- ◆ 오션플라워호 부산출항 1박 2일 139,000원~

무안 ↔ 대만 정기편(제주항공)

매주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출발

- ◆ [노탑,노음선] 스펀,단수이,야류,지우편 699,000원~
- ◆ [고품격] 화련,테로각,지우편,야류 699,000원~

무안 ↔ 방콕·파타야 정기편(제주항공)

[매주 수,목(3박5일)/토,일(4박6일)]

- ◆ [실속] 549,000원~ ◆ [폭격] 849,000원~

무안 ↔ 다낭(제주항공&베트남항공)

매주 화,목,금,토,일 출발 3박4일

[바나팩] 599,000원~ / [후에폭격팩] 699,000원~

[노탑&노음선] 849,000원~

무안 ↔ 세부(제주항공)

월요일 출발(2박4일) / 화,수,금,토 출발(3박5일)

[세미팩] 429,000원~ / [폭격팩] 699,000원~

*모든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 포함사항이 다르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양국정부인허가조건 *운항스케줄이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 제등다2003-1호

공통조건 : 여행기간 1인 기준, 여행비용 가입(여행상품) : 1억원, 국내상품 5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 및 부수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 지역 * 상가 요금은 한층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보험 가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약관) 수령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 경비없음. 기사/가이드 봉사, 선택관광, 각종 배차비 별도 *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JOY TOUR